

REUTERS WEEKLY NEWSLETTER

Monday, Jan 14, 2019 (2019-3 호)

- [주간 국내 일정](#)
- [주간 해외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전망](#)
- [지난주 주요 기사](#)

- ◇ (POLL)-신년 기대에 지난 2 주간 2 통화들 롱포지션으로 전환
- ◇ (칼럼) 美 경기침체? 컨센서스 없지만 언제든 가능한 시나리오
- ◇ (초점) 올해 첫 부채스왑 임박한 통화스왑 시장, 5년 이하 커브 역전 해소될까
- ◇ (초점)-지난해 고용 세부 내용 '처참'..최저임금 등 약재에 재정 역부족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이메일: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다운 끝내기 집회'에서 연방정부 근로자와 시민들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로이터/케빈 라마르크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월11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16.4	0.7%	-0.1%	-4.1%	유로	1.1467	0.6%	0.0%	-4.4%
100엔 대비	1,029.1	-0.1%	-1.3%	-6.9%	엔	108.54	0.0%	0.9%	2.8%
유로 대비	1,281.1	-0.8%	-0.3%	0.2%	위안	6.7666	1.5%	1.6%	-5.3%
위안 대비	165.11	-1.7%	-2.0%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3,995.95	2.4%	2.9%	-5.6%
코스피	2,075.57	3.2%	1.7%	-17.3%	나스닥	6,971.476	3.5%	5.1%	-3.9%
코스닥	686.33	3.3%	1.6%	-15.4%	S&P500	2,596.26	2.5%	3.5%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490.90	4.0%	2.9%	-16.2%
국고채 3Y	1.804%	0.7bp	-1.3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877%	1.1bp	-0.7bp	-45.9bp	미국채 2Y	2.543%	4.5bp	4.5bp	60.7bp
국고채10Y	1.992%	2.0bp	4.4bp	-52.1bp	미국채 10Y	2.699%	3.1bp	0.8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51.59	7.6%	13.6%	-24.8%	한국 5Y	34.95	-4.00	-3.11	-13.74
금(현물)	1,287.50	0.2%	-1.1%	-1.5%	일본 5Y	22.33	0.55	0.55	-3.34
TR상품지수	2,389.14	0.4%	0.7%	0.0%	중국 5Y	61.64	-7.19	-4.83	16.96

(달러/원 서울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주간 국내 일정

<1 월 14 일(월)>

- 금감원, 12 월 외국인 증권투자동향(06:00)
- 기재부, 국채시장 전문가 간담회(14:00)

<15 일(화)>

- 한은, 12 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한은, 12 월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12:00)
- 한은, BOK 경제연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방식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산업별 분석)(12:00)

<16 일(수)>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2:00)

<17 일(목)>

-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18 일(금)>

- 특이 일정 없음

주간 해외 일정 (한국시간)

<1 월 14 일(월)>

- 중국, 12 월 수출입(미정)
- 중국, 12 월 외국인직접투자(FDI)(14~21 일 중)
- 유로존, 11 월 산업생산(19:00)
- 일본 휴장

<15 일(화)>

- 유로존, 11 월 무역수지(19:00)
- 미국, 1 월 뉴욕연은 제조업지수(22:30)
- 미국, 12 월 생산자물가지수(PPI)(22:30)

<16 일(수)>

- 일본, 12 월 기업상품가격지수(08:50)
- 일본, 11 월 기계주문(08:50)
- 중국, 12 월 주택가격(10:3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21:00)
- 미국, 12 월 수출입 물가(22:30)
- 미국, 12 월 소매판매(22:30)
- 미국, 11 월 기업재고(자정)
- 미국, 11 월 소매재고 수정치(자정)
- 미국, 1 월 NAHB 주택시장지수(자정)

<17 일(목)>

- 미국, 연준 베이지북 발간(04:00)
- 유로존, 12 월 인플레이션(19:00)
- 미국, 12 월 건축허가(22:30)
- 미국, 12 월 주택착공(22: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22:30)
- 미국, 1 월 필라델피아연은 지수(22:30)

<18 일(금)>

- 일본, 12 월 소비자물가지수(CPI)(08:30)
- 일본, 11 월 산업생산 수정치(13:30)
- 유로존, 11 월 경상수지(18:00)
- 미국, 12 월 산업생산(23:15)
- 미국, 12 월 산업생산(23:15)
- 미국, 1 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자정)

<외환시장>

- 온건한 연준의 스탠스가 확인되고,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점진적인 합의 등에 따라 금융시장 분위기가 개선됐다.
- 이런 대외시장 여건이 급변할 가능성은 적어 보여 달러/원 반등 시도는 어려울 것이다.
- 사상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미국 정부 섯다운에 대한 부담, 이번 주 초 발표될 중국 경제지표 부진 가능성,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 표결 이후 파운드 약세에 따른 달러 반등 가능성 등은 달러/원 지지 요인이다.
- 계절적 네고가 약화되는 시기인데다, 단단한 달러 매수세 등도 달러/원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결국 이번 주 달러/원은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시장>

- 채권시장은 이번 주 미국의 섯다운 문제 해결 여부, 영국의 15일 브렉시트 의회 표결 결과 등과 맞물리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장중 변동성은 커지고 있지만 레인지 상·하단은 더 견고해지는 상황이라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연초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이뤄진 자금 집행도 큰 물량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 1년 이하 국고채, 통안채 금리는 2분기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않는 이상 추가 하락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
- 시장참가자들은 산금채 등 특수채와 은행채 등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있는 캐리 물건에 대한 관심을 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오래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
- 주중에 미국의 섯다운 문제, 영국의 브렉시트 표결 등과 맞물려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채권금리 역시 방향성을 정하겠지만, 금리 하단에서 큰 폭으로 반등하기도, 상승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POLL)-신년 기대에 지난 2주간 亞 통화들 롱포지션으로 전환

(로이터)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시각에 리스크 수요가 커지며 지난 2주간 투자자들이 작년 초 이후 처음으로 대부분의 아시아 통화들에 대해 롱포지션으로 돌아선 것으로 로이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로이터가 13명의 펀드매니저와 외환시장 트레이더,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아시아 통화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태도는 크게 바뀌었다. 지난 2018년 세계 경제 둔화 우려를 키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에 돌파구가 되어 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 이유로 풀이된다.

위안에 대한 숏포지션은 2017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며 중립 수준에 가까워졌다.

작년 내내 계속됐던 긴장은 안전자산 수요를 촉발해 달러는 작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달러는 미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금리 인상 중단 전망에 하락하며 신흥시장 통화를 부양하고 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에 대한 포지션은 2018년 2월 초 이후 처음으로 롱포지션으로 돌아섰다. 작년 루피아는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통화 중 하나였다.

작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루피에 대한 숏포지션은 작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 말의 갑작스러운 유가 하락이 루피를 지지했다.

로이터는 9개 아시아 신흥국 통화(중국 위안, 한국 원, 싱가포르 달러, 인도 루피, 대만 달러, 인도네시아 루피아, 필리핀 페소, 말레 이시아 링깃, 태국 바트)에 대한 전문가들의 현재 시장 포지션을 조사해 발표한다.

순롱포지션/순숏포지션은 ±3을 범위로 측정되며, +3은 미국 달러에 상당한 롱포지션을 취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다음은 조사 결과다(각 통화 對 미국 달러 포지션).

DDMM	CNY	KRW	SGD	IDR	TWD	INR	MYR	PHP	THB
10/1	0.08	-0.06	-0.33	-0.21	0.13	0.14	-0.06	0.23	-0.67
13/12	0.52	0.44	0.54	0.57	0.34	0.72	0.78	0.66	0.15
29/11	1.06	0.74	0.57	0.71	0.73	0.55	0.96	0.70	0.50
15/11	1.28	0.85	0.87	1.37	0.73	1.19	0.97	0.93	0.48
1/11	1.37	0.99	0.75	1.69	0.82	1.37	0.89	1.07	0.53
18/10	1.14	0.82	0.49	1.68	0.60	1.68	0.75	1.36	0.07
4/10	1.11	0.56	0.70	1.65	0.65	1.74	0.74	1.53	0.10
20/9	1.12	0.79	0.95	1.57	0.69	1.72	0.82	1.44	0.33
6/9	0.92	0.64	0.86	1.37	0.68	1.72	0.90	1.13	0.24
23/8	0.93	0.71	0.84	1.27	0.91	1.19	0.88	0.86	0.47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칼럼) 美 경기침체? 컨센서스 없지만 언제든 가능한 시나리오

(※ 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런던(로이터) - 미국 경제가 곧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최근 나온 미국의 견실한 고용지표와 제품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힘입어 상당히 수그러들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에 시장 심리는 회복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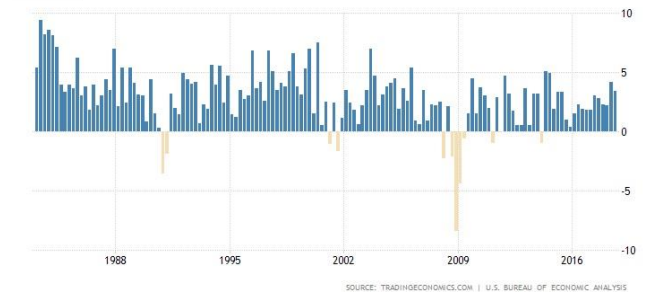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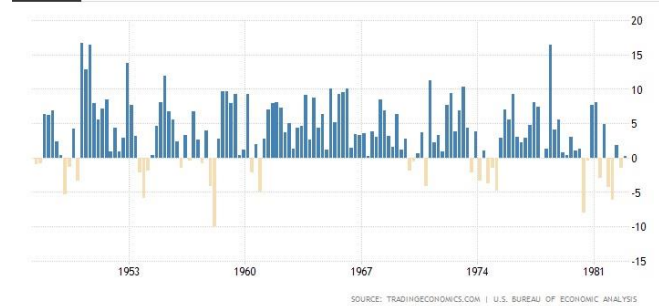
그러나 미국의 경기침체는 언제든 가능한 시나리오다.

모간스탠리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 루처 샤르마의 보고서처럼 전문적인 예측가들은 매년 미국의 경기침체를 예측하지 못했다.

지난 2000년 8월 전문적 예측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서베이에서는 2001년 1분기와 2분기 GDP 성장률이 각각 3.0%와 2.7%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그해 3월 경기침체가 시작됐다.

이는 최근의 정보를 더 잘 기억하는 최신 편향(recency bias)때문이기도 하다.

경기 둔화 신호들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경기침체의 구체적인 증거는 드러나지 않는다. 아래 차트에서 보듯이 경기침체 전 성장률은 종종 꽤 강력하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향후 2년 내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은 40%로 확대됐다. 중간값이며 컨센서스는 아니다.

지난달 6-13일 로이터가 100명 이상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은 11월 조사 때의 35%에서 40%로 뛰었다. 작년 5월 이 질문이 처음 제시된 이래 최고치다.

또 미국 경제 성장률은 앞으로 수 분기 동안 둔화돼 2020년 중반에는 평균 연율 성장률이 1.8%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초점) 올해 첫 부채스왑 임박한 통화스왑 시장, 5년 이하 커브 역전 해소될까

서울(로이터) 임승규 기자 - 통화스왑(CRS) 시장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일부 공기업을 필두로 다수의 국내기관이 해외채 발행을 타진하고 있어 올해 첫 부채스왑(Liability Swap)이 임박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연초 달러 자금시장 상황이 개선되며 FX 스왑포인트 역전폭이 가파르게 축소된 여파로 5년 이하 커브가 급격히 눌린 상황이라, 부채스왑이 나올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CRS 5년 이하 커브 역전폭 심화..부채스왑 태핑에 분위기 반전 기대

레피티티브(구 톰슨로이터) 아이콘 호가창에 따르면 지난 8일 종가 기준 1년 CRS 금리는 1.315%, 2년

CRS 금리는 1.65%, 3년 CRS 금리는 1.15%, 5년 CRS 금리는 1.13%, 10년 CRS 금리는 1.415%다.

1년부터 5년 테너까지 CRS 금리가 모두 역전돼 있다. 지난해 연말 중공업체의 선물환 매도가 2년 이상 5년 이하 테너에 집중되면서 커브 역전이 고착화됐다.

5년 이하 테너에서의 CRS 금리 역전폭은 올해 들어 더욱 커졌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8bp, 8.5bp, 11.5bp였던 1/2년, 1/3년, 1/5년 CRS 금리 역전폭은 지난 8일 15bp, 16.5bp, 18.5bp까지 벌어진 상태다. 연초 달러 자금시장 수급 개선과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경 전망 등에 힘입어 지난해 연말 2050 전까지 밀렸던 1년 FX 스왑포인트 역전폭이 1700 전까지 축소된 게 1년 CRS 금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시장참가자들이 주목하는 건 대기하고 있는 부채스왑 물량이다.

채권업계에 따르면 중부발전, 서부발전, 한화토탈이 이미 로드쇼를 마치고 외화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통상 부채스왑을 하지는 않지만 한국석유공사 역시 다음 주에 외화채 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기관들의 외화채 발행여건은 무르익었다는 지적이다.

시장 일부에선 CRS 중기 커브가 워낙 누워 있기 때문에 부채스왑이 나올 경우 금리가 크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날 CRS 4년 테너로 나왔던 비드 역시 부채스왑 관련 물량 아니냐는 추정도 제기되고 있다.

A은행 이자율딜러는 "크로스 커브가 워낙 누워 있기 때문에 부채스왑이 나왔을 때 금리가 많이 될 수 있는 여건은 된다"며 "1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한다면 FX 스왑포인트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스왑은행이 스프레드 비드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B은행 이자율딜러는 "몇 군데 기관이 부채스왑을 태핑하는 것 같은데 작년 연말에 너무 좋은 레벨을 봤기 때문에 약간 주저하는 느낌이 있다"며 "다만 현 시점에선 무조건 먼저 발행하는 곳이 승자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든 먼저 부채스왑을 하면 금리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FX 스왑·오퍼 수급 변수

변수는 FX 스왑시장 상황과 오퍼쪽 수급이다.

FX 스왑포인트 반등 모멘텀은 점차 약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1년 FX 스왑포인트는 9일 현재 -1700 전대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중립금리 발언으로 FX 스왑포인트가 -2000 전대까지 밀리기 전 상당 기간 머물렀던 게 -1600 전대다. 연초 효과까지 감안하더라도 FX 스왑포인트가 현 수준에서 얼마나 더 반등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연초에 CRS 금리 상승폭이 커진다면 지켜보고 있던 기관들이 자산스왑(Asset Swap)에 나설 가능성도 커진다. 다만 통상 보험사들이 1월에 자금집행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A은행 이자율딜러는 "오퍼쪽 수급과 관련된 기관들이 최근 금리 상승세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렇게 금리가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반대쪽 수급이 진입하는 임계점이 오는데 그 때 분위기가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7일에 2,3년 테너로 저항세력이 보였다"며 "부채스왑이 나오면 일단 커브는 조정을 받겠지만 금리가 무한정 한방향으로만 흐르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은행 이자율딜러는 "크로스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커브가 동시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이 불안할 때 테너별로 각각 움직인다"며 "향후 부채스왑과 자산스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테너별로 다른 방향성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초점)-지난해 고용 세부 내용 '처참'..최저임금 등 악재에 재정 역부족

세종(로이터) 박예나·유춘식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받은 첫 연간 고용 지표는 예상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연간 취업자 증가 수는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물론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는 15세 이상 인구 증가 둔화와 일부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직 등 일시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위기라고 하기는 지나치다는 정부의 평가도 일리가 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브리핑에서 고용 부진에 대해 "인구 증가 폭 둔화, 경기적 측면에서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제조업 부진과 함께 경기 부진 영향에 따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취업자 수 감소, 중국 관광객 감소 영향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림어업 부문과 재정 투입에 의해 뒷받침된 공공행정 등을 빼고 보면 지난해 고용 상황은 위기 상황에 버금간다는 일부 평가가 과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부인하는 파격적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고스란히 나타난 부분을 감안하면 올해 추가로 큰 폭 인상된 최저임금 효과가 우려된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9만 7천명 증가해 세계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8만 7천명 감소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이는 정부가 부랴부랴 하향 조정해 연간 목표치 10만명에 못 미치는 것이며 애초 2017년 말 설정했던 전망치 32만명의 1/3도 안 되는 것이다.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구직자는 늘어 실업률은 3.8%로 2017년(3.7%)보다 상승하며 2001년(4.0%)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률이 3.8%라면 객관적으로는 아주 높지는 않다. 전 연령 고용률도 60.7%로 2017년의 60.8%보다 낮아졌지만, 기록적인 것은 아니다.

▲ 고용 지표 내용은 '처참'한 수준

그러나, 고용 지표 세부 내용은 실로 처참한 모습이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로이터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농림어업을 제외한 취업자 수는 지난해 3만 6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그나마 재정 투입 영향을 받은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서의 취업자가 17만 7천명 증가한 것이 전체 지표를 떠받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진국에서 눈여겨보는 비농림어업 취업자는 재정 효과를 제외하면 지난해 무려 14만 1천명 감소해 2009년(39만 5천명 감소) 이후 최악이었다.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종에서 취업자가 11만 8천명 줄어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재 유진증권 팀장은 "정부가 공공근로를 통해 고용시장 부양에 나서겠지만 이같은 추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면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직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대를 가져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월부터 16.4% 인상됐고 올해 1월부터 추가로 10.9% 인상됐다. 2년 사이에 30% 가까이 인상된 것이다. 게다가 주휴수당 반영 방법 등 각종 제도 변경으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노동비용은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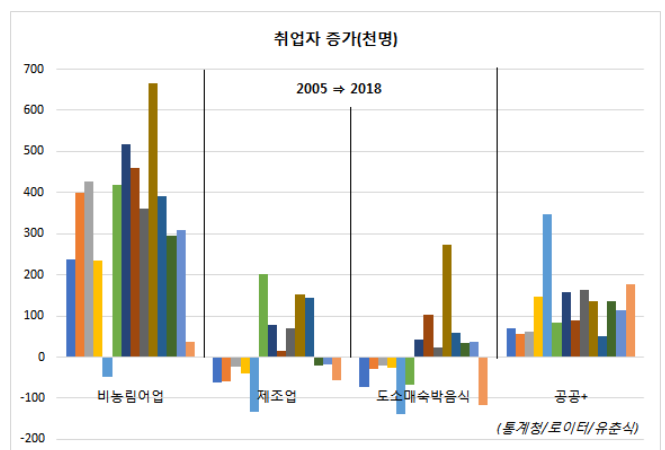
▲ 최저임금 인상의 위력

독립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이번 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한국의 고용 시장 추가 악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성장을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로이터가 지난해 10월 조사한 글로벌 예측기관 전망치 중간값 2.7%와 정부의 2.6-2.7% 성장 목표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 활력을 높여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을 경제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으며 고용의 질적 측면은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평가와 정책 목표를 함께 놓고 보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재정 지출을 10% 가까이 늘려 최대한 경제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연중 1/3로 내려야 했던 지난해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데는 아직 미흡하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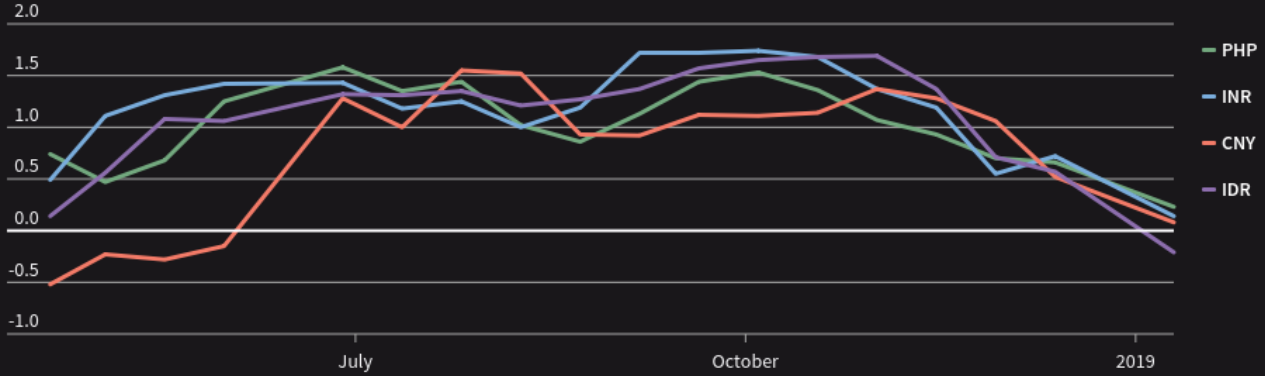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Reuters Poll: Bears retreat on most Asian FX

Investors moving increasingly long on Asian currencies against the U.S. dollar



Poll results over the year with positive values indicating the market is long U.S. doll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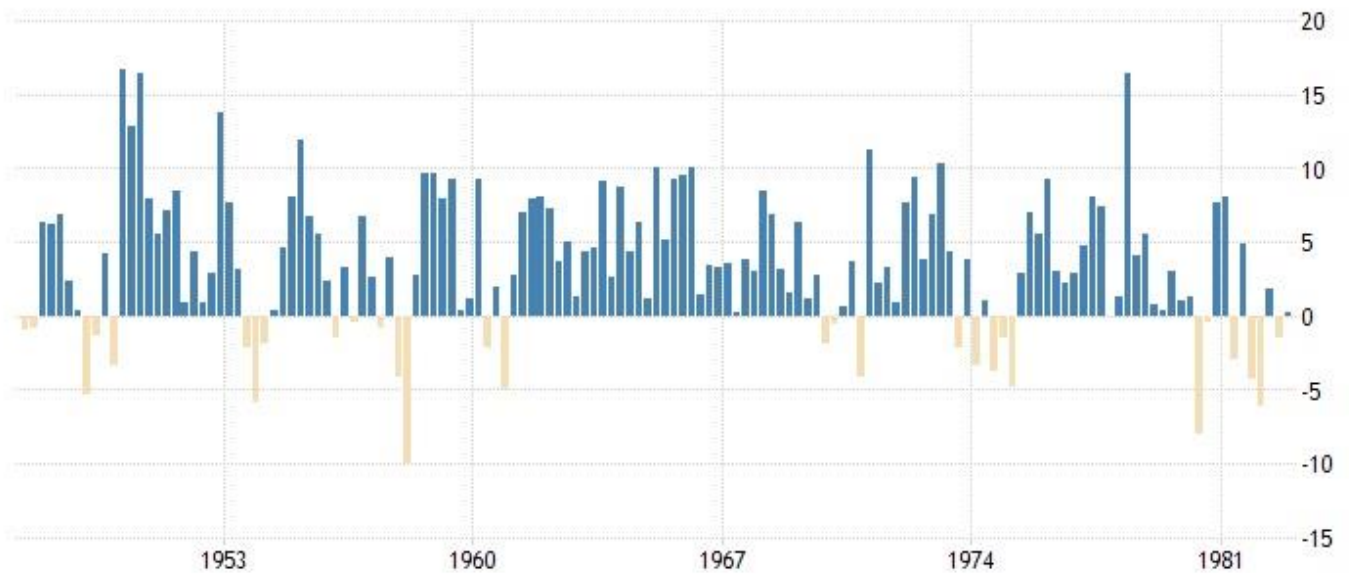
Reuters Poll

Nikhil Kurian Nainan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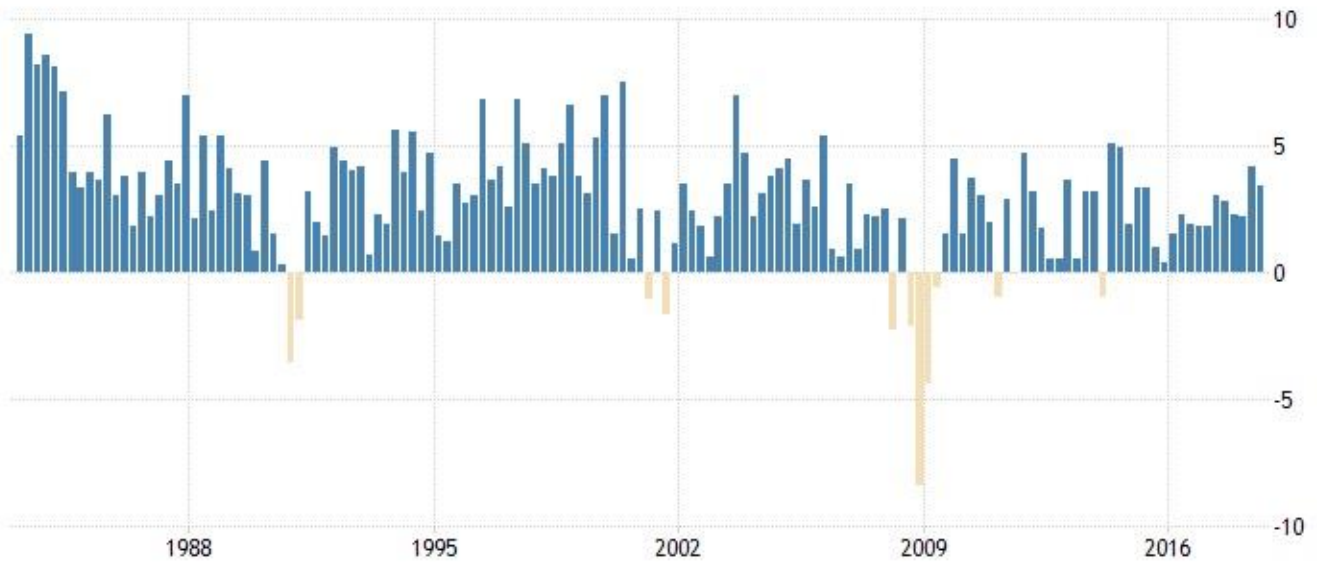
DDMM	CNY	KRW	SGD	IDR	TWD	INR	MYR	PHP	THB
10/1	0.08	-0.06	-0.33	-0.21	0.13	0.14	-0.06	0.23	-0.67
13/12	0.52	0.44	0.54	0.57	0.34	0.72	0.78	0.66	0.15
29/11	1.06	0.74	0.57	0.71	0.73	0.55	0.96	0.70	0.50
15/11	1.28	0.85	0.87	1.37	0.73	1.19	0.97	0.93	0.48
1/11	1.37	0.99	0.75	1.69	0.82	1.37	0.89	1.07	0.53
18/10	1.14	0.82	0.49	1.68	0.60	1.68	0.75	1.36	0.07
4/10	1.11	0.56	0.70	1.65	0.65	1.74	0.74	1.53	0.10
20/9	1.12	0.79	0.95	1.57	0.69	1.72	0.82	1.44	0.33
6/9	0.92	0.64	0.86	1.37	0.68	1.72	0.90	1.13	0.24
23/8	0.93	0.71	0.84	1.27	0.91	1.19	0.88	0.86	0.47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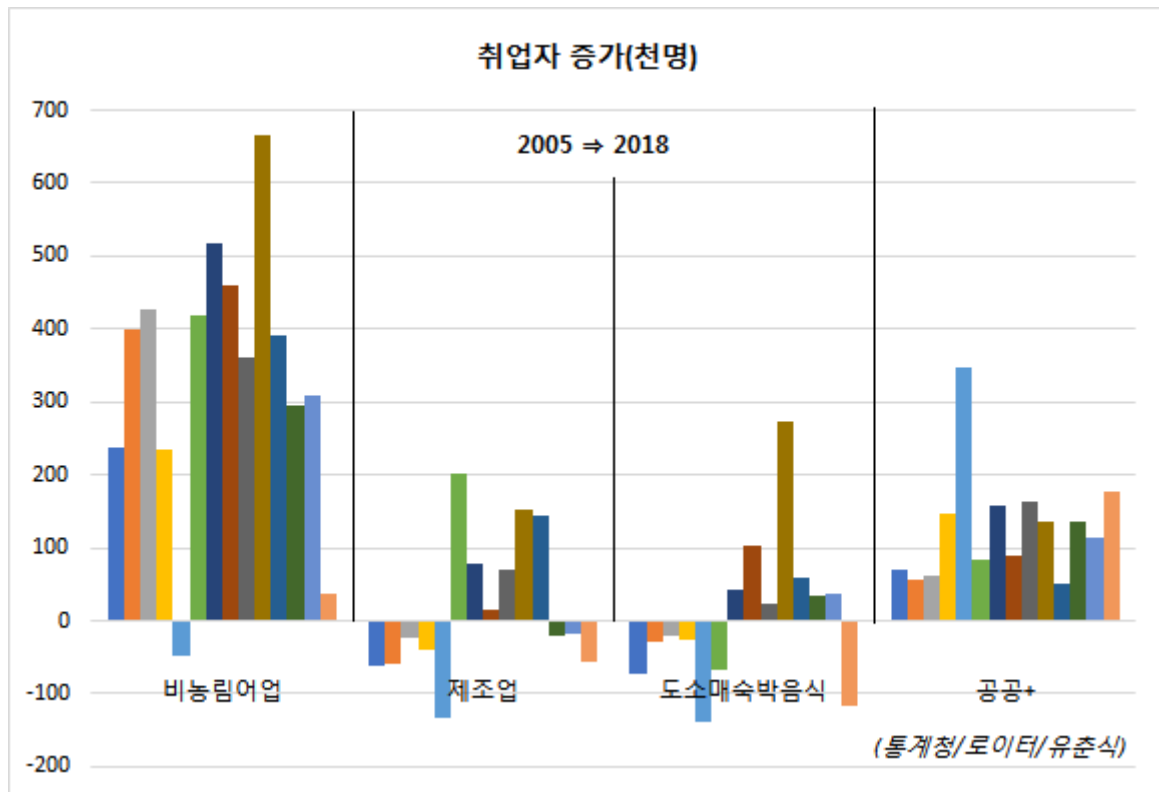
SOURCE: TRADINGECONOMICS.COM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SOURCE: TRADINGECONOMICS.COM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